필리핀의 보물 '보라카이'로 떠난 우수센터 해외연수

글 · 사진 울산산업보건센터 전다솜

2019년 11월 6일, 울산산업보건센터 전 직원이 필리핀 보라카이로 〈2018년 우수센터 해외연수〉를 떠났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시간을 돌아보았다.

보라카이 숙소 앞에서

화이트 비치에서 단체사진

청정 바다에 매료되었던 시간

직원 모두가 업무를 마친 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밤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날아 도착한 깔리보공항은 '이곳이 연간 수백만 명이 온다는 공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수속이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보라카이는 그야말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 매력적이고 무척 여유로운 곳이었다.

보라카이는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깔리보공항에서 버스로 2시간 이동한 뒤 선착장에서 30분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다. 센터에서 나온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보라카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착과 동시에 폭우가 몰아쳤다. 비와 함께 시작된 첫째 날은 보라카이의 대표 관광 중 하나인 세일링보트를 타는 일정이었다. '세계 3대 화이트비치' 중 하나로 꼽히는 '보라카이 화이트비치'는 명성만큼이나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바다 속 산호와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손에 닿을 듯 선명하게 보였다. 세일링보트를 타고나서 가이드와 함께 현지 시장투어를 한 뒤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둘째 날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쨍쨍했다. 호핑투어를 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고 준비운동을 했다. 호핑투어는 특색있는 관광지를 배로 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투명한 바다 속과 우리는 마주했다. 현지가이드를 따라 바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압도적인 풍경에 매료되었다. 바다 속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니모와 색색의 산호가 춤추고 있었다. 바다 속 풍경에 취해 시간 가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날들

어느덧 일정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해외연수가 끝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직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팀이 달라 교류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했다. 그렇게 다 같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보라카이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찾아왔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보라카이에서 보낸

01

02

01___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
02___ 무한 삼겹살 집에서

김해공항에서 단체사진

시간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마지막 자유시간동안 우리는 기념품을 준비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박 5일의 연수일정에서 생각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 무엇보다 69명의 모든 직원이 아무 사고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올해 3월에 입사한 나는 선배들이 고생해서 일궈낸 각종 성과를 그저 편하게 누리는 것만 같아 늘 미안했다. 그러나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더욱 더 열심히 내 몫의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야말로 선배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일이지 않을까? 아울러 '2018년 우수센터 해외연수'기간동안 직원들과 함께 한 시간은 앞으로 내게 큰 힘이 될 것 같았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가는 협회가, 그리고 울산산업보건센터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